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한계 극복하기:

이사야 53장을 시험 사례로*

김진규 (백석대학교/구약학)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성경주석의 절대적인 방법론으로 여겨진다. 주석가들은 본문의 유형에 상관없이 먼저 본문의 원래의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이들이 말하는 역사적 의미란 저술 당시의 특정한 지칭대상(referent)을 가리키는 것을 거의 항상 의미한다. 그런데 좁은 역사적 맥락에서 지칭 대상을 항상 찾으려는 ‘경직된’ 역사적 문법적 성경해석 방법론은 의미의 이해에 있어서 단어와 대상을 바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잘못된 의미론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경직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순수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순수한 미래 예언(예, 살전 4:15-17)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분명히 지칭하기 때문에 성경 기록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지칭 대상을 찾을 수 없다.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성경 해석자들은 ‘뜻이 통하는 것’과 ‘지칭대상을

* 이 연구는 필자가 성경문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의 2013년도 연례모임(미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서 11월 23-26일에 개최됨)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여 제65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정기논문발표회(2015년 4월 25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됨)에서 발표한 것이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발표 시에 논찬을 해주신 오성호 교수께 감사드리고, 그가 제공한 귀중한 통찰이 본 논문에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2015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힌다.

* 논문 접수일: 2015. 07. 31. 수정 접수일: 2015. 09. 21. 게재 확정일: 2015. 09. 23.

찾는 것'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 의미론 연구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오그덴-리차즈의 '의미의 삼각형'을 사용하고 있다. 의미의 삼각형은 '단어와 대상'이 바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기호', '뜻', '지칭대상'의 삼각관계를 통해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다. 오그덴-리차즈의 연구는 '기호'와 '지칭대상' 간에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기호는 반드시 뜻을 통해 지칭대상을 이해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뜻'과 '지칭대상' 사이를 구별하고 있다. 뜻이 통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파악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구별은 이사야 52:13-53:12와 같이 순수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만약 이 본문에 나오는 종에 대한 지칭대상이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해석자는 그 본문의 뜻이 통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구속사가 전 개념에 따라 해석자는 누가 진짜 지칭대상인가를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주제어: 역사적 문법적 해석, 예언 해석, 이사야 53장, 의미의 삼각형, 지칭대상, 의미(뜻)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순수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본문을 주석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문법적 성경해석 방법론의 한계를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¹ 이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학의 의

¹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롱한다. 그런데, 순수한 미래 예언의 대표적인 실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백 번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다. 다니엘도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서 또한 예언했는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사야 41:22-23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미래 예언의 능력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순수 미래 예언에 대한 오해의 시작은 성경본문과 세속 글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들 간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방법

미론 연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성경주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은 본문의 장르에 상관없이 그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찾으면서 주석을 시작한다. 그들은 원래의 역사적 의미는 항상 그 본문이 쓰인 시대의 특정한 ‘지칭대상’을 가리킨다고 가정하고 시작한다. 그러나 이렇게 ‘경직된’ 역사적 문법적 해석방법의 사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예, 살전 4:15-17)과 같이 순수하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안겨준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지칭한다.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성경 주석가들은 ‘뜻이 통하는 것’(sense-making)과 ‘지칭대상을 찾는 것’(referent-finding)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인식은 오그덴-리차즈(Ogden-Richards)의 연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의 연구는 언어학적 의미론을 이해하는데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본 연구에서 오그덴-리차즈의 그 유명한 “의미의 삼각형”을 사용하려고 한다.² 이 삼각형은 “단어와 대상”(word-and-thing)을 바로 연결시키는 방법의 문제점을 폭로하였다. 오그덴-리차즈의 연구는 ‘기호’(symbol)와 ‘지칭대상’(referent)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³ 이들은 또한 의미에 있어서 ‘뜻’(sense)과 ‘지칭대상’(referent)을 구분한다. ‘뜻이 통하는 것’은 반드시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구분은 이사야 52:13-53:12와 같은 미래를 지칭하는 예언의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그덴-리차즈의 의미의 삼각형을 ‘순수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본문의 해석에 적용해보려고 한다.

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논하겠다. 성경 자체의 증거가 성경본문과 세속 글들 간의 확실한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하고 있다. 성경의 계시가 세속적인 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² C. K. Ogden and I. A.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Language upon Thought and of The Science of Symbolism*, 4th e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6), 11.

³ Ogden and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11-12.

II.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한계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성경해석 원리』에서 역사적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언어는 저자의 영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가 사용한대로 그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적절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이해하지 않고는 저자나 그의 말을 결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저술 당시의 시간, 장소, 환경과 당시의 세계관은 저자의 글에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다.⁴ 그래서 주석가의 과제는 저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역사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이 쓰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능하면 자세히 재구성해야 하고, 글을 쓰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석가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⁵ 벌코프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이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이란 말과 ‘문법적’이라는 말이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상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는 역사적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 문법, 표현방식 등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

포이트레스(Vern S. Poythress)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란 “성경 각권이 어느 특정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산물이라는 점을 스스로 의식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와 같은 접근법이라고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⁷ 그는 어떤 성경 본문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⁴ L.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1950), 113-14.

⁵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114-15.

⁶ 이는 박형용이 사무엘 데이빗슨(Samuel Davidson)의 글을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방법의 우월성”, 『성경과신학』 2 (1984): 33.

⁷ V. S. Poythress, “Divine Meaning of Scriptur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8 (1984): 277.

밝히기 위해서 세 단계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a)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이 나오는 개별 성경책의 맥락과 인간 저자와 그 책의 역사적 상황의 맥락 속에서 읽혀져야 한다. 하나님은 진실로 특수한 시기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 (b) 어떤 본문이든지 그 시기까지 이용 가능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혀져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고 그 위에 세워진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 (c)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 전체(완성된 정경)의 맥락 속에서 읽혀져야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가 나중에 하실 말씀이 이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 이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한 저자로부터 온 하나의 길고도 복잡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나타내도록 의도하셨다.⁸

부루스 위키(Bruce Waltke)는 시편을 해석하면서 “정경 과정 접근”(canonical process approach)이라는 독특한 정경 형성 단계별 의미를 추구하는데, 위키는 네 단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원래 시인에게 주어진 그 시편의 의미
- (2) 제1성전과 관계된 초기 시편들의 모음에서의 의미
- (3) 제2성전과 관계된 최종 완성된 구약성경 속에서의 의미
- (4)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정경 속에서의 의미⁹

포이트레스나 위키가 주장하는 다단계의 성경해석은 구속사적인 해석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해석 방법론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다단계의 성경해석은 꼭 필요하고 특히 성경의 현시대의 적용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⁰

⁸ Poythress, “Divine Meaning of Scripture,” 267-68.

⁹ B. K. Waltke, “A Canonical Process Approach to the Psalms,” in *Tradition and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Charles Lee Feinberg*, eds. J. S. Feinberg and P. D. Feinberg (Chicago: Moody, 1981), 9.

그런데 성경 본문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기 위한 이들의 방법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첫 번째 단계의 의미를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에서 ‘지칭대상’을 항상 찾게 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의 원래의 역사적 의미를 본문의 장르와 상관없이 본문이 저작될 당시의 무엇 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제하고 시작한다. 이와 같은 접근을 소위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미명아래 행한다.¹¹ 주석가가 본문을 접근할 때 ‘모든’ 본문의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지칭대상을 찾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긴다. 특히 역사비평학이 등장하면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더욱 경직화되어 예언서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기능을 부정하고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제한된 대상을 지칭하는 의미로 더욱 좁게 이해하게 되었다.¹²

필자는 이런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론의 기계적인 사용이 특히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의 역사적 의미를 과거의 ‘좁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칭대상을 찾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심각한 해석학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본다.¹³ 예를 들면 이사야 52:13-53:12와 같은 미래 예언을 다루면서 이 예언에 나오는 ‘종’에 대한 지칭 대상을 이스라

¹⁰ 칼빈도 성경의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밝히기 위해서 “다중적 성취의 해석학”(hermeneutics of multiple fulfillments)이라는 성경해석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라영환이 멀러의 견해를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라영환, “칼빈의 성경해석학-칼빈의 역사적 문법적 방법론에 대한 재조명”, 『개혁논총』 11 (2009), 238-39. 원출처는 다음과 같다. Richard Muller, “The Hermeneutics of Promise and Fulfillment i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of the Kingdom,” in *The Bible in the Sixteenth Century*, ed. David Steinmetz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0), 71-72. 필자는 아브라함의 복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위키와 포이트레스의 모델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김진규, “아브라함 복의 세 가지 구속사적 의미와 이의 현대 설교에의 적용”, 『개혁논총』 24 (2012): 9-39.

¹¹ V. S. Poythress, “The Presence of God Qualifying Our Notions of Grammatical-Historical Interpretation: Genesis 3:15 as a Test Cas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0/1 (2007): 89-91.

¹² R. F. Surburg, “The Historical Method in Biblical Interpretation,”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23/2 (1952): 90.

¹³ 오직 미래에 성취될 예언을 다루는 본문은 모형론적인 의미를 가진 본문과는 다르다. 모형론적 의미를 지닌 본문은 일차적인 지칭대상을 원래의 역사적 상황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완성된 의미(지칭대상)를 정경 전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53장과 같은 ‘순수 미래 예언’은 지칭대상을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의미(지칭대상)를 찾아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엘이나 고대근동의 좁은 역사적 맥락에서 찾는 것은 성경 자체의 증거와도 상충됨을 해석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논하겠지만 노스(North)는 여기에 나오는 고난의 종을 지칭하는 대상을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15명을 열거하고 있다.¹⁴ 이렇게 서로 상충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역사적 접근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런 ‘경직된’ 역사적 문법적 성경해석 문제의 근원은 ‘의미’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필자는 본다.

그러나 필자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올바른’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바른 성경해석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방법임을 먼저 밝혀둔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사중(四重)적인 의미를 찾는 해석을 버리고 문자적인 의미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미임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역사적 문법적 성경해석 방법이었다.¹⁵ 비록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라는 기술적인 용어는 후대에 사용하게 되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한 성경해석 방법이 바로 역사적 문법적인 방법이었다. 루터, 칼빈, 쾰링어 등에게 이르기까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도구들이었다.¹⁶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본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론의 뒤에 깔려 있는 잘못된 전제(wrong presuppositions)도 또한 인지해야 한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전제들과 한계들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성경해석에 있어서 이 방법론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검토하겠다. 이 방법론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¹⁴ C. 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192. 역사비평적 방법에 대한 P. D. Hanson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단 역사비평적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 이것이 결코 해석 과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P. D. Hanson, “The World of the Servant of the Lord in Isaiah 40-55,” in *Jesus an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and Christian Origins*, ed. W. H. Bellinger, Jr. and W. R. Farmer (Harrisburg: Trinity, 1998), 10.

¹⁵ R. F. Surburg, “The Presuppositions of the Historical-Grammatical Method as Employed by Historic Lutheranism,” *Springfielder* 38/4 (1975): 279.

¹⁶ Surburg, “The Presuppositions of the Historical-Grammatical Method as Employed by Historic Lutheranism,” 279.

①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신비주의적 해석, 통제되지 않은 알레고리적 해석, 억지 성경해석, 절제되지 않은 영해 등을 막아준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의 이런 비성경적인 해석을 배격하기 위해서 단순한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였다.¹⁷

②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셨는데,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현 방식, 그들의 역사적 상황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파고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¹⁸

③ 이 방법론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양식과 성격을 관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역사 속에서 계시의 점진성(progressiveness)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¹⁹ 우리는 구약시대의 다양한 제도들, 사람들,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모형론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궁극적으로 통합되어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크게 강화된다. 각 시대마다 베일을 벗기며 드러나는 점진적 계시는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도와준다. 사실 정당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본문의 의미의 각 층들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파악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계시의 진행에 따라 다른 층에 존재하고 있는 의미와 함께 발전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론을 절대화하거나 이상화하게 되면 잠재적인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방법론 자체가 성경해석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사고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²⁰ 이는 그 자체 안에 ‘가정된 전제들’이 존재하는데, 일부 학자들이 주석과정에서 보이듯이 본문의 의미를 좁은

¹⁷ W. G. Kümmel, *The New Testament: The History of the Investigation of Its Problems*, trans. S. M. Gilmour and H. C. Kee (NY: Abingdon, 1972), 108.

¹⁸ 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Y: Anchor Books, 1966), 47-128.

¹⁹ Poythress, “Divine Meaning of Scripture,” 277.

²⁰ Kümmel, *The New Testament*, 51-119.

역사적 맥락으로 제한함으로써 때로는 더 충만한 혹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맞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순수한 미래를 예언하는 본문’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 방법론의 명백한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① 역사적 문법적 주석의 뿌리는 중세의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인데, 이는 문학, 철학, 정치, 종교 등 거의 모든 학문의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²¹ 고대 희랍 문학 연구는 고대문헌 해석방법을 제공했고, 이는 마침내 중세의 인문주의자(예,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자들의 사고의 틀에 영향을 미쳤다. 칼빈은 그가 성경주석을 쓰기 전에 세속 인문주의자들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세속 문학인 세네카의 『관용론』(*De clementia*)에 관한 주석을 먼저 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²² 그러나 칼빈은 이런 세속적 도구들을 큰 경건과 개혁적인 생각과 성령이라는 거룩한 문헌의 내적인 역학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통해 크게 성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현대의 사상가들은 칼빈이 구약성경의 미래 예언적 본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인문주의적 성향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²³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는 성경의 신적인 의도를 누르는 과정을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성경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기 시작했다.²⁴ 계몽주의의 자율적인 인간정신은 성경의 신적인 면을 억누르는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마침내 계몽주의 정신의 산물인 역사비평은 사실상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

²¹ Barnabas Lindars, “The New Testament,” in *The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vol. 2: *The Study and Use of the Bible*, ed. Paul Avis (Grand Rapids: Eerdmans, 1988), 295-96.

²² David L.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Columbia Series in Reformed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1995), 52-53. 퍼킷(Puckett)은 이렇게 말한다. “세네카에 대한 그의 접근은 인문주의자가 고대 작가를 해석하는데 기대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는 본문을 고쳤고, 구조와 어휘와 숙어를 분석했고, 본문을 이의 원래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요컨대 그는 본문을 역사적으로 연구했다... 만약 세네카의 『관용론』을 이해하려면, 저자가 그의 말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의미를 갖도록 의도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칼빈이 나중에 성경해석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전의 역사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성경도 고전문학전집처럼 고대 인간의 저술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도록 요청되었다. 그의 역사적 민감함은 그가 구약성경을 접근하는데 깊은 영향을 끼쳤다.”

²³ Cf. J. I. Packer, “Infallible Scripture and the Role of Hermeneutics,” in *Scripture and Truth*, eds. D. A. Carson, et al. (Grand Rapids: Zondervan, 1983), 333.

²⁴ Lindars, “The New Testament,” 295-96.

의 영감을 성경해석에서 지워버렸다.²⁵

② 르네상스 시대의 자율적인 인간정신과 함께 중세시대에 유대인들과의 대화도 구약해석을 과거에 매인 주석으로 묶어버리기 시작했다.²⁶ 이런 성향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정경이 우리의 삶을 위한 규범이라는 기독교인의 전제를 점차적으로 침식하기 시작했다.²⁷ 심지어 칼빈 조차 그의 시대의 성경해석의 큰 흐름의 영향을 받아 때로는 미래 예견적인 예언들에 대해 주석을 하면서, 유대인의 상황을 이의 실제적인 지칭대상으로 여기는 역사적 의미와 연결을 시도하기도 했다.²⁸ 극단적인 실례가 이사야 4:2의 해석인데, 칼빈은 이를 오직 유대인의 역사적 상황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칼빈의 주석과 대조적으로 델리취[F. Delitzsch]는 이를 오직 메시아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²⁹ 여기서 필자는 어떤 예언이든 이의 ‘역사적 상황’(historical circumstances)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모든 미래 예견적인 예언의 메시지(예, 사 53장)가 ‘역사적 지칭대상’(historical referents)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문제가 있

²⁵ Kümmel, *The New Testament*, 62-205.

²⁶ John Rogerson, “The Old Testament” in *The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The Study and Use of the Bible*, ed. Paul Avis (Grand Rapids: Eerdmans, 1988), 67. 로저슨(Rogerson)은 “일반적으로 ‘문자적’ 주석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율법의 문자적 의미에 대한 토론은 12-13 세기의 전형적인 실례인 것처럼 보인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관심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학자들 간의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라쉬(Rashi)의 글에 예시되었듯이 유대인들 사이에 문자적 형태의 해석방법의 출현에 의해서 야기되었다.”라고 주장한다.

²⁷ Rogerson, “The Old Testament,” 67-87. 예를 들면, 중세의 성 빅토르 학교 출신 중(주후 12세기)에 휴(Hugh)는 유대인 학자들과 종종 상의했고, “메시아 예언들이 주어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단순히 고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67-68). 휴는 요엘 2:28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언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기를 선호했다(68). 마침내 또 다른 빅토르 출신 중에 휴의 사사를 받은 앤드류(Andrew)는 이사야 53장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것을 지칭하고, ‘슬픔의 사람’은 포로중인 유대인들을 위한 집합적인 용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69). 나중에 이 해석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퀴나스(Aquinas) 시대에는 문자적 역사적인 의미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72). 이 시기 즈음에 문자적인 의미는 더 이상 차선의 해석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73). 칼빈은 빅토르 출신인 앤드류의 극단적인 주석을 따라가지 않고 이사야 52:13-53:12와 시편 110편의 기독교론적인 해석에서 예시되었듯이 기독교적 해석을 옹호하였다(87).

²⁸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vol. 4, trans. W. Pringle (Grand Rapids: Eerdmans, 1948), 303-5. 칼빈은 기독교적 해석에 대한 유대인들의 조롱을 너무 의식한 것처럼 보인다.

²⁹ Calvin, *Isaiah*, vol. 1, 152-53; F.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vol. 1, trans. James Martin (Grand Rapids: Eerdmans, 1969), 151-53.

다고 본다. 미래 예언 본문으로부터 문자적 역사적 의미(저자의 의도를 근시안적인 역사적 지칭대상내로 제한하는 것)를 찾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문제가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뒤에 이사야 52:13-53:12에 나오는 ‘종’에 대한 강요된 해석의 문제점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③ 역사적 문법적 주석의 세 번째 전제는 계몽주의의 이성주의적 정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철학 백과사전』에서 크레인 브린톤(Crane Brinton)은 기독교에 계몽주의가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유형의 초월성이나 개인적인 불멸이나 기독교 성례의 전체의 조직에 대한 계몽된 부정과 원죄교리에 대한 계몽된 거절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의 많은 것들은 그리스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개신교회에 똑같이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기독교를 거부하는 우리 시대의 세계관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의 세속적인 신념(실증주의, 물질주의[특히 마르크스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윤리적 문화”와 나머지를)을 갖고 있는데 이는 계몽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심지어 18세기에조차 광범위한 신념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상들이 거의 닿지 않은 전통적인 기독교로부터, 온갖 타협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이신론이나 유니테리언리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후자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신학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 아마 우리의 모델로 삼고 있는 계몽주의는 신에 대한 어떤 형태의 믿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거의 확실히 볼테르(Voltaire),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심지어 루소(Rousseau)의 유행을 쫓는 이신론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신론자의 신은 그 자신이(혹은 그 ‘자체?’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음) 고도로 이성주의적인 개념인데, “뉴턴적 세계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이의 작동을 멈추거나 결코 간섭하지 않고 결코 기적은 행하지 않는 “시계공 신”(clockmaker god)과 같다.³⁰

계몽주의는 성경해석 연구에 있어서 이성주의적 추론을 분명히 부과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역사적 문법적 주석방법’이 성경해석학 원리로

³⁰ C. Brinton, “Enlightenment,”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 eds. P. Edwards et al.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67), 521-22.

서 태동하게 된 시기가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난 시기와 일치한다. 역사적 문법적 성경해석 방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계몽주의의 이성주의적 사고와 함께 다양한 영행(과학적 방법의 추구, 인문주의적 연구, 유대인의 해석 등)을 받으면서 오랜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 문법적 주석’이라는 기술적인 용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신약학자인 쿨멜(Kümmel)은 “문법적-역사적 이해”의 출현 과정과 영향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하고 있다.

에르네스티(Ernesti)는 문법적 해석은 신약성경 그 자체로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고, 제믈러(Semler)는 더 나아가 본문이 역사적 상황의 견지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리고 가블러(Gabler)는 그의 선배들이 정의한대로 역사적 철학적 비평을 주석의 임무에 추가했는데, 이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또한 포함시키기 위해서였다... 적어도 1788년에 라이프찌히 신학자인 칼 아우구스트 고틀로프 카일(Karl August Gottlob Keil)은 1810년 해석학에 관한 교재에 그가 반복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성경을 포함하여 *무슨 종류의 글이든지 이해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논제를 내놓게 되었다. 이는 *문법적 역사적 이해*인데, 이는 *저자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약의 책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들이 신적인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은 고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석가는 그가 설명한 본문이 *이의 주장에 있어서 옳은가 틀린가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이 진술에 따르면, 카일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전제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첫째, 그는 이 도구를 유일한 방법으로 절대화하고 있다. 둘째, 그는 세속 글들과 영감된 성경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셋째, 그는 오직 인간 저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저자의 생각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는 신적 의미나 영감을 무시하고 있다(“신적인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은 고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르네상스 인문주의에서 유래하였고, 계몽주의의 이성주의

³¹ Kümmel, *The New Testament*, 108. 강조는 필자가 삽입한 것이다.

에 의해 강화되었고, 역사비평적 방법이라는 가장된 객관성과 결혼을 한 이와 같은 자율적인 인본주의적 정신은 ‘굳어빠진’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라는 이성주의적인 종교적 ‘튀기’(hybrid)를 출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성경의 영감을 무시하게 되었고, 성경의 진리를 과거 중심적인 역사적 실체로 뒷전으로 던져버렸고, 성경의 유기적 통일성을 무시하게 되었고(그래서 조직신학을 무능화시켰고), 마침내 본문의 깊고도 충만한 의미를 지워버리게 되었다. 굳어빠진 역사적 문법적 해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구약성경의 예견적인 혹은 메시아적인 예언의 해석과 불가피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역사적 해석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미래 예언 본문의 ‘지칭대상’(referent)을 인간 저자의 좁은 역사적 맥락에 제한함으로써 신약성경의 저자가 구약성경의 저자가 원래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본문에 집어넣었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부적절한 사용의 실례이다. ‘굳어빠진’ 역사적 문법적 주석은 ‘역사주의’(historicism)를 이의 근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는데, 이는 미래 예언 본문의 미래적 혹은 종말론적 지칭 기능을 완전히 달아버렸다.³² 이런 전제는 주석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패튼대로 본문을 접근하기 위해서 주어진 본문의 명백한 의미조차 억누르거나 왜곡시키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전제를 제거하고, 역사적 의미와 함께 본문의 충만하고도 깊은 전체적인 중요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역사적 문법적 주석의 한계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³² ‘역사적 의미’를 찾는 것은 성경해석에 있어서 일종의 필수요소이지만, ‘역사주의’는 역사에 대한 현대의 세속적인 견해가 깔린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탐구는 추구해야 하겠지만, 진화론과 같은 ‘과학주의’(scientism)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대치해야 할 철학적 견해일 뿐이다. 역사적 문법적 주석은 우리가 다듬어야 할 과학적 주석 방법이다. 그러나 ‘굳어빠진’ 역사적 문법적 주석의 전제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의 견지에서 찾아내어 드러내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III. 의미에 있어서 ‘뜻이 통하는 것’과 ‘지칭대상을 찾는 것’ 사이의 구분

이사야 52:13-53:12와 같은 순수한 예언적 본문을 주석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방법론의 주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주로 ‘의미’라는 개념을 본문을 저작할 당시의 뉘가를 ‘지칭한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데서 생긴다.³³ 여기서 필자는 대부분의 성경본문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니엘의 인자에 대한 예언(단 7:13-14)과 같은 미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특정한 본문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본문은 북(Bock)이 “직접적으로 예언적”(“directly prophetic”)이라고 칭하는 그런 본문이다.³⁴ 노스(North)에 의해 열거된 이사야 52:13-53:12에 대한 서로 모순된 많은 해석들은 전통적인 역사적 문법적 이해가 이 본문과 같이 직접적으로 예견적인 예언을 주석하는 데는 부적절함을 드러낸다.³⁵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오용의 문제는 ‘의미’의 개념을 단순히 ‘단어와 대상’의 관계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긴다.³⁶ ‘단어와 대상’의 의미개념

³³ 피셀톤(Thiselton)에 의하면, 의미의 지칭대상 이론, 의미의 의미론적 이론, 의미의 관념적 이론, 의미의 기능적 이론, 의미의 사실상 이론 등과 같은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A. C. Thiselton, “Meaning,” in *A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eds. R. J. Coggins and J. L. Houlden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436-38. 이런 각각의 이론들은 그 자체의 약점들과 강점들을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순수 예견적인 예언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이론을 선택하였다.

³⁴ D. L. Bock, “Single Meaning, Multiple Contexts and Referents,” in *Three Views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eds. S. N. Gundry, et al. Books in the Counterpoints Series (Grand Rapids: Zondervan, 2007), 118. 북(Bock)은 다니엘 7:13-14를 “직접적으로 예언적인” 범주로 분류를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프란츠 델리취(Franz Delitzsch)도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110편은 직접적으로 예언적인 시편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 F.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Psalms*, vol. 1, trans. F. Bolton (Grand Rapids: Eerdmans, 1952), 66. 그는 “모든 다윗의 시편 중에서 시편 110편 단 하나는 다윗이 (사무엘하 23:1-7의 그의 마지막 말에서처럼) 그의 후손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메시아를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³⁵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192.

³⁶ M. Silva,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은 플라톤과 어거스틴 시대로부터 유래한 구식의 ‘의미의 지칭대상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³⁷ 이는 성경의 의미의 깊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 자체의 한계들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피셀톤(Thiselton)은 “이 이론은 제한된 분야의 언어 용례들과 어휘의 유형들에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³⁸ 다행히 어휘 의미론의 연구와 다른 관련 학문의 진보 덕분에 ‘의미의 의미’는 더 이상 단순한 ‘단어와 대상’의 개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³⁹ 특히 “의미의 삼각형”에 관한 오그덴-리차즈의 연구는 ‘의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⁴⁰ 의미의 삼각형은 기호(symbol), 사상 혹은 지적의미(thought or reference), 그리고 지칭대상(referent)로 구성되어 있다.⁴¹ 실바(M. Silva)는 이들의 삼각형을 다듬어서 아래와 같은 삼각형을 만들었다.⁴²

Rapids: Zondervan, 1994), 103. 의미에 있어서 ‘단어와 대상’ 관계의 이 견해는 플라톤으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그는 어휘란 대상을 위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F. R. Palmer, *Semantics: A New Outlin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19쪽을 참조하라.

³⁷ Thiselton, “Meaning,” 436. 의미의 지칭대상 이론은 추상명사들(사랑, 미움, 무의미, 영감 등)과 문장과 같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Palmer, *Semantics*, 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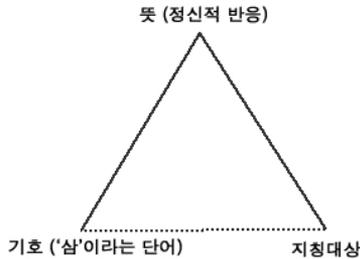
³⁸ Thiselton, “Meaning,” 436. 특히 이 이론은 피셀톤이 지적한대로 은유의 해석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³⁹ ‘의미’의 개념은 의미론, 기호언어학, 철학, 심리학, 언어학, 그리고 성경해석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⁴⁰ Ogden and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11. 언어학 분야에 있어서 오그덴-리차즈의 유명한 삼각형은 언어학적 의미론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고, 철학적 문학적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또한 주었다. 특히 의미의 삼각형은 ‘단어와 대상’(word-and-thing) 이론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⁴¹ 오그덴-리차즈가 ‘지적의미’(refe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학자들은 그들의 학문분야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리온스(J. Lyons)는 이를 오그덴-리차즈가 ‘지칭대상’이라고 칭하는 것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리온스는 ‘뜻’(sense)이라는 용어를 의미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J. Lyons, *Semantics*, vol. 1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174-75, 197-98쪽을 참조하라.

⁴² Silva, *Biblical Words*, 102-3. 실바는 올만의 ‘뜻’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오그덴-리차즈의 “기호-사상-지칭대상”(symbol-thought-referent)을 “기호-뜻-지칭대상”(symbol-sense-referent)으로 바꾸었다. 올만(Ullmann)은 의미의 삼각형을 위해서 “이름-뜻-대상”(name-sense-th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S. Ullmann, *Meaning and Style: Collected Papers* (New York: Harper & Row, 1973), 6. 비록 오그덴-리차즈, 실바, 올만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다.



그는 “기호”(symbol)를 “음성학적 혹은 기록된 형태의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뜻”(sense)을 “기호에 의해서 떠오르는 정신적인 내용”이라고 칭했고, 그리고 “지칭대상”(referent)을 “지칭되는 언어 영역 밖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했다.⁴³ 의미의 삼각형의 발견은 성경 본문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그덴-리차즈, 올만, 실바 모두는 “기호와 지칭대상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두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⁴⁴ 이들은 기호와 지칭대상 간에는 ‘간접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기호와 지칭대상 간에는 간접적인 관계 외에 적당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지칭대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있다. 기호와 지칭대상은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그리고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를 암시할 때 이는 진짜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이는 단순히 부여된 것이다), 다만 삼각형의 다른 두 면의 주위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⁴⁵

⁴³ Silva, *Biblical Words*, 102.

⁴⁴ Silva, *Biblical Words*, 105; S. Ullmann,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1962), 54-64; S. Ullmann, *Language and Style: Collected Papers* (Oxford: Basil Blackwell, 1964), 18.

⁴⁵ Ogden and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11-12. 오그덴-리차즈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만일 본문의 원래의 지칭대상을 이의 의미로 생각하고 성급하게 찾는다면 이에 대해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팔머(Palmer)에 따르면, 오그덴-리차즈의 이론은 ‘단어와 대상’ 이론의 “많은 문제점들을 피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또한 언어의 지시적 기능을 가볍게 여기는데 대해 경고하고 있다(*Semantics*, 26, 30-34). 그는 “[지칭대상과 뜻의 사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언어 속에 존재하는 것 사이에 절대적인 선(absolute line)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34). 여기서 팔머는 ‘reference’를 ‘referent’(지칭대상)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오그덴-리차즈의 이 말은 ‘기호’가 가리키는 ‘지칭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 ‘뜻’(이들의 용어를 사용하면, ‘사상’ 혹은 ‘지적의 미’)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연구는 주로 단어의 연구와 관계된 것이지만 이 삼각형의 기본적인 개념은 본문의 의미의 이해를 위해서 적용될 수 있다.⁴⁶ 해석자들의 문제는 ‘단어와 대상’ 이론에서 유래한 과오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의미를 이의 지칭대상과 단순하게 동일시하는 데서 주로 생긴다. 그러나 만약 성경해석에 실마의 모델을 사용한다면 본문의 의미는 먼저 ‘뜻’(sense)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포이트레스도 해석에 있어서 이해의 순서를 지적하고 있다. “모든 지칭대상들은 궁극적으로 ‘뜻’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해될 것이다. 물론 인간의 뜻에 대한 제한된 이해 때문에 지칭대상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⁴⁷ 요컨대 해석자가 항상 원래의 역사적 의미를 좁은 역사적 상황 안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뜻’과 ‘지칭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주로 유래하는 것이다. 때로 ‘뜻’의 이해는 ‘지칭대상’의 이해와 구별된다.⁴⁸ 뜻이 통한다는 것은 지칭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예, 단 8:27).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질문과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뜻이 통하는가?”라는 질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말이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언어의 사회문화적 범위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⁴⁹ 예를 들면 나의 글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대화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

⁴⁶ 어떤 사람들은 의미의 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휘들, 문장들, 텍스트들 사이에 구분을 짓지만, 이 연구에서 필자는 그라시아(J. J. E. Gracia)의 연구를 따라 이들을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J. J. E. Gracia, “Meaning” in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 K. J. Vanhoozer (Grand Rapids: Baker, 2005), 492.

⁴⁷ Vern S. Poythress, *God-Centered Biblical Interpretation* (New Jersey: P & R, 1999), 208.

⁴⁸ 케이어드(Caird)도 ‘뜻’과 ‘지칭대상’의 구분이 중요함을 감지했다. 그는 “뜻과 지칭대상 간의 차이는 의미를 논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일단 깨닫게 되면 너무나 자명해지는데, 유식한 저자들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했다. G. B. Caird, *The Language and Imagery of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80), 54쪽을 참조하라.

⁴⁹ Berger and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47-92.

해야만 한다. 대화가 어떤 특정한 문화에서 뜻이 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조건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화의 지칭대상의 범위는 언어의 ‘뜻이 통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비록 미국사람이 한국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는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어떤 언어도 언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넘어서 미래의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지칭대상과 대화가 발생한 역사적 상황 간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지칭대상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영어로 “The year after next, he will come back.”(“후년에 그가 올 것이다.”)이라고 말한다면, 영어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데, 왜냐하면 그는 영어를 알고 있고 또 미국 문화에서 “the year after next”(후년)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이 말의 지칭대상은 그 사람이 지금부터 2년 후에 취할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2천년 후에 그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말은 어떤가? 우리는 이 말이 우리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의 지칭대상은 어떤가? 이 말의 지칭대상은 이 말을 한 사람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훨씬 뛰어넘는다.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오래 살 것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이성주의자들은 인간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잘못되었거나 이 말의 뒤에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의 이성주의자들은 이런 종류의 언어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 이런 말은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이런 표현은 비신화화(demythologization) 한 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신화화(remythologization)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예, 볼트만). 이제 만약 이런 말을 예수님 자신이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마24:33-34).⁵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말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다수는 그리스도

가 곧 재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의 지칭대상은 그들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훨씬 뛰어넘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재림의 때에 대한 지칭대상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 참고, 살전 4:15-17). 그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의 지칭대상은 저자의 좁은 역사적 맥락 안으로 제한할 수 없다. 핵심은 미래 예견적인 예언의 경우에 대화가 발생한 ‘역사적 상황’에서의 언어의 조건화(뜻이 통합)와 미래 예견적인 예언이 가리키는 대화의 ‘실제적인 지칭대상’(지칭대상 찾기)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언어가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조건화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비록 대화가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표현되었다고 할지라도 ‘대화의 지칭대상’이 좁은 역사적 상황적 맥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⁵¹

‘굳어빠진’ 역사적 문법적 주석의 주된 결함 중에 하나는 이 방법론이 이성주의적인 전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예견적인 예언의 ‘지칭대상’을 좁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주로 찾으려는데 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언어의 ‘역사적 조건화’(뜻이 통합)와 ‘실제적인 지칭대상’(지칭대상 찾기) 사이를 구별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⁵² 게다가 굳어빠진 역사적 문법적 해석방법은 본문의 의미를 근시안적 역사적 맥락 안으로 제한함으로써 성경 예언의 ‘초자연적인’ 의

⁵⁰ 여기 ἐγγύς ἔσται ἐπὶ θύρας의 의미에 대하여 해그너(D. A. Hagner)는 주석하기를 “이 비유의 바로 앞의 맥락에서 이는 인자의 재림에 관해서 분명하게 가리킴으로 ‘문 앞에 이른 줄’이라는 말의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는... 이것이 인자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D. A. Hagner, *Matthew 14-28*, WBC 33B (Dallas, Tex.: Word Books, 1995), 715.

⁵¹ 그러나 뜻과 지칭대상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뜻을 이해하지 않고는 지칭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역으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한다. 케어드와 찰스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뜻과 지칭대상이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칭대상을 확 인하는데 실패하면 뜻의 이해를 감소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뜻은 공중에 떠버리게 된다.” Caird, *The Language and Imagery of the Bible*, 55.

⁵² 의사소통의 지시적 기능에 관하여 필자는 포이트레스의 세 가지 소고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V. S. Pooythress, “A Framework for Discourse Analysis: The Components of a Discourse, from a Tagmemic Viewpoint,” *Semiotica* 38 (1982): 277-98; “Hierarchy in Discourse Analysis: A Revision of Tagmemics,” *Semiotica* 40 (1982): 107-37; “Divine Meaning of Scripture,” 248-52.

미를 죽이게 된다.⁵³ 얼마나 자주 현시대의 학자들이 미래 예언적인 본문의 지칭대상을 좁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찾으려고 분주한가!⁵⁴ 이 모든 문제는 의미에 있어서 ‘뜻이 통하는 것’과 ‘지칭대상을 발견하는 것’ 사이를 구별하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IV. 이사야 52:13-53:12에 나오는 ‘종’에 대한 해석을 시험 사례로

이사야 52:13-53:12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핵심적인 이슈는 “누가 이 본문의 종인가?”이다. 그가 역사적인 개인인가, 집단적인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가?⁵⁵ 노스의 분석에 따르면 약 15명의 역사적 인물들(이사야, 웃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예레미야, 에스겔, 욥, 모세, 여호야긴, 고레스, 세스바살, 스룹바벨, 메술람, 느헤미야, 엘르아살)이 이사야 40-55장에 나오는 종에 대한 지칭대상으로 제안되었다.⁵⁶ 이런 주장에 더해서 와츠(Watts)는 다리오 왕을 이사야 53:7-9, 12의 종과 화자라고 주장함으로써 또 다른 해석을 추가하고 있다.⁵⁷ 왜 이렇게 이 본문에 나오

⁵³ Poythress, “Divine Meaning of Scripture,” 255-56. 신약 저자들의 지속적인 주장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성육신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1 Cor 15:3)는 사실이다. 바울은 이 문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하나님 말씀의 초자연적인 예언적 능력을 의도하고 있다고 본다.

⁵⁴ 케이어드는 “신화와 종말론의 우주적 언어”에 대한 현대 학자들의 해석에서 똑 같은 문제점을 관찰하면서 “성경가자들이 이와 같은 언어를 세상의 시작이나 종말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한 전통적인 관념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이유들을 우리는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Caird, *The Language and Imagery of the Bible*, 56.

⁵⁵ 해리슨(R. K. Harrison)에 따르면, 종의 해석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있다: “개인적, 집단적, 이상적, 그리고 역사적 해석” 등이다. R. K. Harrison, “Servant of the Lord,” *ISBE* 4:422-23. 최근에 개인과 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혼합된 견해가 허미션(H.-J. Hermisson)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그는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이를 받는 이스라엘” 모두와 동일시한다. H.-J. Hermisson, “The Fourth Servant Song in the Context of Second Isaiah,” in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eds.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trans. D. P. Bailey (Grand Rapids: Eerdmans, 2004), 16-47. 그러나 그의 견해는 ‘단어와 대상’ 이론에 기초한 다른 견해와 유사할 뿐이다.

⁵⁶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192.

는 종에 대한 서로 모순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해리슨은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어려움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종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한다면 이사야가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그림은 구약의 역사서들에서 만나게 되는 그림과 상당히 다르다. 만약 종의 묘사가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 이상적인 한 개인의 묘사라면, 이는 히스기야, 고레스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다. 심지어 “집합적인 개인”이라는 개념도 ... 국가, 종, 그리고 메시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이는 국가의 기능에 대비해서 종의 기능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종의 기능이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개인으로 전이되었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⁵⁸

이사야 40-55장에 종의 지칭대상이 여기저기서 바뀐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⁵⁹ 한번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선택된 자를 지칭한다(사 42:1).⁶⁰ 다음 이는 눈먼 자를 지칭한다(사 42:18-19). 또 한 번은 집합적인 이스라엘을 지칭한다(사 41:8, 9; 44:1, 21; 45:4; 48:20; 49:3, 5). 이사야 52:13-53:12의 맥락에서는 “나의 종”(사 52:13)이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유는 종을 지칭하는 대상을 앞의 맥락에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⁶¹ 많은 학자들이 본문의 원래의 의미가 이의 저작 당

⁵⁷ J. D. W. Watts, *Isaiah 34-66*, WBC 25 (Waco: Word, 1987), 227.

⁵⁸ Harrison, *ISBE* 4:423.

⁵⁹ 이사야 40-55장에는 ‘종’이라는 말이 21번 등장한다. 오스왈트(J. N. Oswalt)는 이들을 두 가지 넓은 범주로 분류하는데, 이는 모두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종들 중에 하나는 “눈멀고, 귀먹고, 반역적인” 종이고, 다른 하나는 “호의적이고 순종하는” 종이다. 오스왈트는 더 설명하기를 “40-48장에는 단 한번(42:1) 외에는 모든 지칭대상이 첫 번째 종인 국가이다. 49-55장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 여기서는 단 한번(54:17) 외에는 모든 지칭대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에게 되돌리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종을 지칭한다.”라고 했다. J. N. Oswalt, “Isaiah 52:13-53:12: Servant of All,” *Calvin Theological Journal* 40 (2005): 88. 그러나 오스왈트는 종의 정체에 대한 모순들을 타협하기 위해서 제3의 인물인 “이상적인 종”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⁶⁰ 마태는 여호와와 선택된 종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다(마 12:17-20).

⁶¹ 이사야서에서 ‘종’이라는 용어가 이사야 자신(20:3), 엘리야김(22:20), 다윗 왕(37:35), 유대 나라(41:8-9; 44:1-2; 45:4; 48:20), 개종자들(56:6), 그리고 다른 확인할 수 없는 개인들(42:1, 19; 43:10; 49:3-6; 52:13; 53:11) 등을 포함해서 수많은 다른 대상을 향해 사용되고 있다. 이사야서에서 종에 대한 다양한 지칭대상을 관찰하고, 트레비스(Treves)는 이사야서에서 누가 종인가라는 질문이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라리 “이 표현이 발생하는 각 구

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해석만 더해가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다. 본문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의 배후에는 본문이 이의 근접 역사적 상황에서 구체적인 누군가를 지칭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원래의 의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노스가 뽑은 목록에 나오는 인물이나 와츠가 제안한 인물은 이사야 52:13-53:12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본문에 따르면, 종의 가장 두드러진 사명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는 것이다.⁶²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속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 본문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5, 6, 8, 11, 12절).⁶³ 고난의 종이 ‘우리’를 위

절에서 종이 누구인가”라고 물어아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M. Treves, “Isaiah LIII,” *VT* 24/1 (1974): 99. 클라인(Clines)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정체에 대해 ‘의도적인 모호함’이 있다고 보았다. D. Clines, *I, He, We and They: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53*, JSOTSup 1 (Sheffield: JSOT Press, 1976), 33.

⁶² 어떤 사람은 종의 대속적인 고난을 부정하는데 이는 본문의 명백한 의미를 분명히 억누르는 견해이다. 참조, H. M. Orlinsky,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in Second Isaiah,” in *Studies i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VTSup 14 (Leiden: Brill, 1967), 1-133. 최근에 유사한 견해를 스피커만이 제안했다. H. Spieckermann, “The Conception and Prehistory of the Idea of Vicarious Suffering in the Old Testament,” in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eds.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trans. D. P. Bailey (Grand Rapids: Eerdmans, 2004), 1-15. 그러나 야노브스키(B. Janowski)는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을 위한, 종의 대속적인 고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연된 인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종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했지만 그들이 종의 성공을 본 후에야 나중에 이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다. B. Janowski, “He Bore Our sins: Isaiah 53 and the Drama of Taking Another’s Place,” in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eds.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trans. D. P. Bailey (Grand Rapids: Eerdmans, 2004), 48-74. 야노브스키는 종을 제2의 이사야와 동일시했는데, 이는 그도 역시 ‘단어와 대상’ 이론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켈(M. Hengel)은 기독교 이전 시기의 이사야 53장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고난당하는 대속적인 종말론적인 메시아 인물에 대한 전통이 팔레스타인 유대교에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이를 알고 적용했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M. Hengel, “The Effective History of Isaiah 53 in the Pre-Christian Period,” in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eds.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trans. D. P. Bailey (Grand Rapids: Eerdmans, 2004), 75-146. (오를린스키와 와이브레가 제안한) 죄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라는 견해에 반해서, 오스왈트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라는 영적인 징계만큼 이는 결코 심각하지 않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가능한 것은 오직 대속을 통해서이다.”라고 강조했다. Oswalt, *Isaiah 40-66*, 385.

⁶³ E.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3,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2), 348. 5절에 대해 주석하면서 영(Young)은 종의 고난이 대속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종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때, 그가 우리가 당해야 할 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지졌기 때문이다. 그의 징계는 대속적이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찢려 죽으셨다. 찢리시고 상하신 것은 그가 우리 대신에 지신 벌이었다.”

해 죄를 짊어지신 것은 이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이다.⁶⁴ 근접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인물이 이와 같은 사역과 어울릴 수가 있는가? 집단적 이스라엘이라는 해석도 본문의 죄를 짊어지는 주제와 어울릴 수가 없다. 왜 이스라엘 국가가 고난을 당했는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사 1:18-25; 3:8-9; 6:9-13; 40:2).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사 5:1-30; 27:8-10; 렘 16:10-13; 17:1-4; 13:8-19).⁶⁵ 노스가 열거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도 고난의 종의 사역과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6절에 묘사하고 있는 고난의 종의 사역을 위해 누가 자격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⁶⁶ 그러므로 고난의 종의 정체에 대해 근접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불가피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이 본문을 ‘순수한 미래 예견적인 예언’으로 분류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고난의 종을 확인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 ‘뜻이 통하는 것’(sense-making)이라는 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난의 종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단어

⁶⁴ 델리취는 예언의 중간에 갑자기 등장한 “우리”는 항상 선지자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주석했다. F.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vol. 2, trans. J. Martin (Grand Rapids: Eerdmans, 1954), 310. 오스왈트는 델리취의 견해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Isaiah 40-66*, 381) 고난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는 것을 대속양이 고난을 지는 것에 비교하고 있다. J.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377. 참고, H. G. Reventlow, “Basic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Isaiah 53,” in *Jesus an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and Christian Origins*, eds. W. H. Bellinger, Jr. and W. R. Farmer (Harrisburg: Trinity, 1998), 27-29.

⁶⁵ 포도원의 노래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했던 죄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는 선포하기를 이들 죄들 때문에 그들이 추방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한다(특히 9, 10, 13절을 보라). J. A. Alexander,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1953), 131-32, 134쪽을 참조하라.

⁶⁶ ‘우리’를 위한, 종의 대속적인 고난은 6절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미리 작정된 계획에 따라 우리의 죄를 질 수 있는가? 6절은 왜 종이 고난을 당했는지 그 답을 주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았다(4절). 참고, C. Westermann, *Isaiah 40-66: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263-64; Young, *Isaiah*, vol. 3, 349-50; J. A.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owners Grove: IVP, 1993), 431.

와 대상(word-and-thing)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리오 왕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가?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은 근접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단어와 대상’ 접근법은 본문의 실제적인 내용과 맞지 않는 억지 해석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근본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대신에 이의 원래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본문의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가 통한다’는 견지에서 이사야 52:13-53:12에 나오는 ‘고난의 종’에 대해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고난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란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52:14).⁶⁷ 우리는 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끌리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53:2).⁶⁸ 그는 인간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거절당한다(52:3).⁶⁹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53:4).⁷⁰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53:5, 8).⁷¹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킨 분은 여호와시다(53:6).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침묵을 지키고 그의 입을 열지 않는다(53:7).⁷² 그는 고난을 당한 후에 크게 만족해할 것이다(53:11).⁷³ 의로운 종은 그들의 죄

⁶⁷ 종의 고난에 대하여 그의 얼굴이 일그러짐(*roww*)과 같은 극히 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Young, *Isaiah*, vol. 3, 337-38). 클라인의 견해를 따라, 오스왈트는 이 용어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고난을 의미한다고 보았다(*Isaiah 40-66*, 379-80).

⁶⁸ H. Bultema, *Commentary on Isaiah*, trans. C. Lambregtse (Grand Rapids: Kregel, 1981), 506-9. 베스트먼(Westermann)은 종의 아름다움의 결핍을 축복과 매력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Isaiah 40-66*, 261). 이 구절의 종에 대한 묘사는 그가 세상에서 요구되는 지도력의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Young, *Isaiah*, vol. 3, 342).

⁶⁹ R. N. Whybray, *Isaiah 40-66*, NCB (Frome and London: Butler & Tanner, 1975), 174-75.

⁷⁰ 영에 의하면 우리의 질고를 진다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사악한 영향력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저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뜻이다(*Isaiah*, vol. 3, 346).

⁷¹ Delitzsch, *Isaiah*, vol. 2, 317-20; Westermann, *Isaiah 40-66*, 262-64; Young, *Isaiah*, vol. 3, 347-49.

⁷² Oswalt, *Isaiah 40-66*, 391-92. 이 구절은 종이 하나님 뜻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암시한다.

⁷³ 영은 이 구절을 “그가 크게 만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한다. 이 번역에는 목적이 없는데, 영은 암시된 목적어를 “그의 메시아적 고난의 열매와 보상”으로 여긴다(*Isaiah*, vol. 3, 356).

를 짊어진 후에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53:11).⁷⁴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질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또한 한다(53:12).⁷⁵ ‘의미가 통한다’(sense-making)는 관점에서 고난의 종에 대한 이런 묘사들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는가?⁷⁶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뜻이 통한다.⁷⁷ 우리는 이 차원의 이해로 그냥 만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난의 종의 지칭대상은 누구인가? 그를 가리키는 지칭대상은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알게 될 것이다. 이의 성취의 때가 도달하게 될 때, 고난의 종에 대한 이 모든 묘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⁷⁸ 우리는 종에 대한 참된 지칭대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V. 결론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경직되게 사용하게 되면 순수 미래 예언을 해석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보았다. 무엇보다 전술한대로 순수 미래 예언이라는 문예적 장르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예, 살전 4:16-17; 단 7-8장; 사 52:13-53:13; 아마, 시편 110편).⁷⁹ 순수 미래 예언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법적

⁷⁴ 영은 “종은 많은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그들의 죄를 진다. 그리고 그들은 대신에 그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주석하고 있다(*Isaiah*, vol. 3, 357-58).

⁷⁵ Westermann, *Isaiah 40-66*, 268-69; Young, *Isaiah*, vol. 3, 358-59.

⁷⁶ 본문 비평적 문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학자들 간의 사소한 차이점들이 이의 분명한 의미(뜻이 통한다는 관점에서)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⁷⁷ 오스왈트는 필자가 이 글에서 채택한 ‘의미가 통한다’(sense-making)는 이해와 유사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무엇이 언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야 하는가는 추론과 유추의 문제인데, 이 자료 그 자체의 의도는 충분히 명료하다”(Isaiah 40-66, 377-78).

⁷⁸ Delitzsch, *Isaiah*, vol. 2, 301-42; Young, *Isaiah*, vol. 3, 359; Oswalt, *Isaiah 40-66*, 408.

⁷⁹ 과거에 순수 미래 예언이 존재함을 복음주의 진영에서 인정은 하였지만 이를 해석할 방법론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단순히 메시아적인 해석(예, 칼빈)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선비평적 접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vol. 4,

해석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본문의 원래의 역사적 의미의 이해가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 ‘의미가 통하는 것’과 ‘지칭대상을 찾는 것’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순수 미래 예언의 경우에 이의 원래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문의 지칭대상을 좁은 역사적 맥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단지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다. 이의 진짜 지칭대상은 하나님께서 작성하신대로 구원역사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106-32). 그러나 필자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사용하면 언어학적인 기반위에 순수 미래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규. “아브라함 복의 세 가지 구속사적 의미와 이의 현대 설교에의 적용”. 「개혁논총」 24 (2012): 9-39.
- 리영환. “칼빈의 성경해석학-칼빈의 역사적 문법적 방법론에 대한 재조명”. 「개혁논총」 11 (2009): 233-51.
-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방법의 우월성”. 「성경과신학」 2 (1984): 28-42.
- Alexander, J. A.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1953.
- Berger, Peter L.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Y: Anchor Books, 1966.
- Berkhof, L.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Baker, 1950.
- Bock, D. L. “Single Meaning, Multiple Contexts and Referents.” In *Three Views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Ed. S. N. Gundry, et al. Books in the Counterpoints Series. Grand Rapids: Zondervan, 2007: 105-51.
- Brinton, C. “Enlightenment.”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 Eds. P. Edwards, et al.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67: 521-22.
- Bultema, H. *Commentary on Isaiah*. Trans. C. Lambregtse. Grand Rapids: Kregel, 1981.
- Caird, G. B. *The Language and Imagery of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80.
-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Vol. 4. Trans. W. Pringle. Grand Rapids: Eerdmans, 1948.
- Clines, D. I. *He, We and They: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53*. JSOTSup 1. Sheffield: JSOT Press, 1976.

- Delitzsch, F.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Vol. 1. Trans. James Martin. Grand Rapids: Eerdmans, 1969.
- _____.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Vol. 2. Trans. J. Martin. Grand Rapids: Eerdmans, 1954.
- _____. *Biblical Commentary on the Psalms*. Vol. 1. Trans. F. Bolton. Grand Rapids: Eerdmans, 1952.
- Gracia, J. J. E. "Meaning." In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 K. J. Vanhoozer. Grand Rapids: Baker, 2005: 492-99.
- Hagner, D. A. *Matthew 14-28*. WBC 33B. Dallas, Tex.: Word Books, 1995.
- Hanson, P. D. "The World of the Servant of the Lord in Isaiah 40-55." In *Jesus an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and Christian Origins*. Eds. W. H. Bellinger, Jr. and W. R. Farmer. Harrisburg: Trinity, 1998: 9-22.
- Harrison, R. K. "Servant of the Lord." *ISBE* 4: 422-23.
- Hengel, M. "The Effective History of Isaiah 53 in the Pre-Christian Period." In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Eds.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Trans. D. P. Bailey. Grand Rapids: Eerdmans, 2004, 75-146.
- Hermisson, H.-J. "The Fourth Servant Song in the Context of Second Isaiah." In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Eds.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Trans. D. P. Bailey. Grand Rapids: Eerdmans, 2004: 16-47.
- Janowski, B. "He Bore Our sins: Isaiah 53 and the Drama of Taking Another's Place." In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Eds.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Trans. D. P. Bailey. Grand Rapids: Eerdmans, 2004: 48-74.
- Kümmel, W. G. *The New Testament: The History of the Investigation of its Problems*. Trans. S. M. Gilmour and H. C. Kee. NY: Abingdon, 1972.
- Lyons, J. *Semantics*. Vol. 1.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Motyer, J. A.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Downers Grove: IVP, 1993.
- Muller, Richard. "The Hermeneutics of Promise and Fulfillment i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of the Kingdom." In *The Bible in the Sixteenth Century*. Ed. David Steinmetz.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0.
- North, C. R.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8.
- Ogden, C. K. and I. A. 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Language upon Thought and of The Science of Symbolism*, 4th e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6.
- Orlinsky, H. M.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in Second Isaiah." In *Studies i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VTSup 14. Leiden: Brill, 1967: 1-133.
- Oswalt, J. 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 _____. "Isaiah 52:13-53:12: Servant of All." *Calvin Theological Journal* 40 (2005): 85-94.
- Packer, J. I. "Infallible Scripture and the Role of Hermeneutics." In *Scripture and Truth*. Eds. D. A. Carson, et al. Grand Rapids: Zondervan, 1983: 325-58.
- Palmer, F. R. *Semantics: A New Outlin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Poythress, V. S. "Divine Meaning of Scriptur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8 (1984): 241-79.
- _____. "A Framework for Discourse Analysis: The Components of a Discourse, from a Tagmemic Viewpoint." *Semiotica* 38 (1982): 277-98.
- _____. *God-Centered Biblical Interpretation*. New Jersey: P & R, 1999.

- Poythress, V. S. "Hierarchy in Discourse Analysis: A Revision of Tagmemics." *Semiotica* 40 (1982): 107-37.
- _____. "The Presence of God Qualifying Our Notions of Grammatical-Historical Interpretation: Genesis 3:15 as a Test Cas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0/1 (2007): 87-103.
- Puckett, David L.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Columbia Series in Reformed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1995.
- Reventlow, H. G. "Basic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Isaiah 53." In *Jesus an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and Christian Origins*. Eds. W. H. Bellinger, Jr. and W. R. Farmer. Harrisburg: Trinity, 1998: 23-38.
- Rogerson, John, C. Rowland, and Barnabas Lindars. *The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Vol. 2: The Study and Use of the Bible*. Ed. Paul Avis. Grand Rapids: Eerdmans, 1988.
- Silva, M. *Biblical Words and Thei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exical Semant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4.
- Spieckermann, H. "The Conception and Prehistory of the Idea of Vicarious Suffering in the Old Testament." In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in Jewish and Christian Sources*. Eds. B. Janowski and P. Stuhlmacher. Trans. D. P. Bailey. Grand Rapids: Eerdmans, 2004: 1-15.
- Surburg, R. F. "The Historical Method in Biblical Interpretation."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23/2 (1952): 81-104.
- _____. "The Presuppositions of the Historical-Grammatical Method as Employed by Historic Lutheranism." *Springfielder* 38/4 (1975): 278-88.
- Thiselton, A. C. "Meaning." In *A Dictiona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Eds. R. J. Coggins and J. L. Houlden.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436-38.
- Treves, M. "Isaiah LIII." *VT* 24/1 (1974): 98-108.

- Ullmann, S. *Language and Style: Collected Papers*. Oxford: Basil Blackwell, 1964.
- _____. *Meaning and Style: Collected Papers*. New York: Harper & Row, 1973.
- _____.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1962.
- Waltke, B. K. "A Canonical Process Approach to the Psalms." In *Tradition and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Charles Lee Feinberg*. Eds. J. S. Feinberg and P. D. Feinberg. Chicago: Moody, 1981: 3-18.
- Watts, J. D. W. *Isaiah 34-66*. WBC 25. Waco: Word, 1987.
- Westermann, C. *Isaiah 40-66: A Commentar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9.
- Whybray, R. N. *Isaiah 40-66*. NCB. Frome and London: Butler & Tanner, 1975.
- Young, E. J. *The Book of Isaiah*. Vol. 3.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2.

Abstract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Grammatical–Historical Interpretation: Isaiah 53 as a Test Case

Kim, Jinkyu

Grammatical-historical interpretation is regarded as an absolute norm of biblical exegesis. Almost all commentary writers start by finding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ext regardless of its literary genre. They assume that historical meaning almost always denotes a particular referent at the time of its composition. However, rigid use of grammatical-historical interpretation may inherit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a future-predictive prophecy, for example, the Second Coming of the Christ (e.g., 1Thess 4:15-17). The parousia of the Christ refers to the future event which will happen when he comes again.

As linguistics develops, Bible exegetes begin to realize that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sense-making’ and ‘referent-finding.’ In this paper, I have utilized Ogden-Richards’s renowned ‘triangle of meaning,’ which revolutionized the study of linguistic semantics. The triangle of meaning is composed of ‘symbol,’ ‘sense,’ and ‘referent.’ The meaning of a word is to be understood b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elements. The triangle reveals the problem of the “word-and-thing” method. Ogden-Richards’s study stresses the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symbol’ and ‘referent.’ A symbol does not directly refer to its referent, but indirectly comes to the understanding of its referent only by means of its sense. It also distinguishes the meanings between ‘sense’ and ‘referent.’ Sense-mak-

ing does not necessarily mean grasping the concrete object of the referent. This distinction will greatly contribute to one's understanding of predictive prophecies such as Isa 52:13-53:12. As a test case, I have applied Ogden-Richards's method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text. If the referent of the servant in this text is not clear in its original, historical context, the interpreter may become complacent about the sense-making of the passage. As redemptive history unfolds, he will later realize who the real referent is.

Key-Words: Grammatical-historical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of Prophecy, Isaiah 53, Triangle of Meaning, Referent, Meaning(Sense)